

## 2026년 제19기 김포도시농부학교 경작보고서

조/성명	3조 / 강석범	날짜	2026. 06. 04.
날씨	맑음	시간	19:00 ~ 21:00
경작 (강의) 내용	<p>강사: 서윤경 주제: 원예학 기초이론 및 주요 식물병해충 방제 전략</p> <p>1. 강의 개요 금번 교육은 원예학의 기초 이론과 실제 농작물 재배 현장에서 발생하는 식물병해충 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. 특히 병해충의 생태적 특성에 근거한 과학적 방제법을 학습함으로써 농업 현장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.</p> <p>2. 주요 해충별 생태 특성 및 방제 대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깍지벌레류: 밀랍 피막으로 인해 약제 침투가 저해되므로 고압 분무를 통해 피막을 제거(분홍 속살 노출)한 후 살포해야 한다. 물리적 방제와 함께 알집을 통한 지속적 번식을 고려한 반복 방제가 필수적이다.</li> <li>- 점박이 응애: 거미류에 해당하므로 살충제가 아닌 '살비제'를 사용해야 한다. 성충의 솜털 보호막이 형성되기 전 초기 대응이 핵심이며, 잎 뒷면의 거미줄 및 흡즙 반점 발생 여부를 상시 관찰해야 한다.</li> <li>- 차면지응애: 육안 식별이 어려운 미세 해충으로, 엽채류에 치명적이며 일반적인 수세로는 방제가 불가하다.</li> <li>- 꽃노랑총채벌레: 잎 표면에 스크래치를 유발하여 기형화를 촉진한다. 성충의 두터운 외피(갑옷 형태)로 인해 방제 난도가 높다.</li> <li>작은뿌리파리: 유충이 근권을 가해하므로 치명적이다. 성충 방제를 위해 관주법(토양 관주)을 병행하여 관리한다.</li> <li>- 온실가루이: 잎 뒷면 흡즙을 통한 생육 저해를 유발한다.</li> <li>- 진딧물류: 처녀생식 기반의 왕성한 번식력을 가지므로 철저한 예찰이 요구된다.</li> </ul> <p>3. 농약 살포 원칙 및 관리 지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살포 농도 및 빈도 관리: 고농도 살포는 작물 약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, 적정 농도 준수와 살포 빈도 확대(주기적 살포)를 통해 방제 효과를 극대화한다.</li> <li>- 약제 선택 전략: 작물의 재배 환경과 상태에 따라 화학농약과 친환경 유기농업자재를 구분하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약제를 선별 활용한다.</li> </ul>		

사진

